

결 정

2018 - 305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지환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8년 1월 1일자(캡처시각) 「현아 기 죽이는 미친 각선미 자랑한 걸그룹」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 1. 20:49>

『현아 곁에서 미친 각선미 뽐낸 13인조 그룹

입력 2018-01-01 06:00 수정 2018-01-01 06:00

[스포츠서울] '섹시 아이콘' 현아 옆에서 끌리지 않은 각선미를 자랑한 그룹이 있어 화제다.

우주소녀는 지난달 31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2017 MBC 가요대제전에서 현아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꾸민 직후 인증샷이었다.

각선미가 돋보였다. 컬러풀한 글귀가 새겨진 의상을 입은 현아 옆에 자리한 우주소녀는 각각 흰색 티셔츠에 짧은 청팬츠로 섹시하면서도 매끈한 다리 라인을 자랑했다.



13인조 그룹답게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 넘쳤다. 대 선배 옆에서도 밀리지 않는 유쾌한 포즈로 연말을 장식했다.

한편, 우주소녀는 내년에 새 앨범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news@sportsseoul.com 사진 | 우주소녀 SNS」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85778>>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우주소녀라는 걸그룹이 인스타그램에 2017 MBC 가요대제전에서 아이돌 가수 현아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인증샷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섹시 아이콘’ 현아 옆에서도 끌리지 않은 각선미를 자랑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본문에 올린 사진 중 유독 허벅지를 강조하는 합성사진

을 게재했다. 허벅지를 클로즈업한 인물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편집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